

“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산 사람 ”

■ 이종윤 원로목사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할 만한 다양한 재능은 없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쏟아 행한 사도 바울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 하기로 그의 행동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다. 사도는 이 한가지만을 행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그의 영혼의 일관성과 강력한 단호함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되게 한 것이다.

바울처럼 전심을 다하고 사도로서 온 힘을 철저히 집중시킬 수 있고 강박한 심령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기울여 자신의 목적에 몰입하는 이며, 오로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 사상에 쉽게 빨려 들어간 생각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현명하며 공경하고 깊이 있는 신중한 학자였다. 사물을 볼 때 의미와 연관시켜 보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는 어떠한 작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행하였고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돌진만 하는 황소같은 사람도 아니었다.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똑바로 밀고 나갈 때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진하고 원한 일이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는 복음의 핵심을 짚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고린도교회 내부의 어떠한 문제보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전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가르치심과 사역들 뿐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숨을 바쳐 증거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주저함없이 증거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으로 증거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었으며 그를 하나님의 본체로 믿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all in all) 이셨다. 사도는 예수님의 구속주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죽으시고 매장되시어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유일한 주제였고, 그는 그 주제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의 설교는 이 주제에 집중되었고 어떤 다른 주제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오늘 우리의 강단이 이와 같은 주제로만 채워진다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 다른 주제를 가미하여 미봉책을 쓴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그의 부활을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소감이 된다 해도 사도는 굴하지 않고 자기 안전과 인기를 위해 탁월한 말씀 씨나 자기 체험이나 지혜로 장식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아무리 자랑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꼭 빼앗으려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의 원수들은 십자가를 대적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을 것이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 한가지 주제만 갖고 성도는 살고 죽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24호] 2012년 6월 16일 발체-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 Kyung W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26-31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Boasting In the Lord”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핀, 프로산도, 수레시, 수브삭,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 아름다운 말 ”

■ 창 27:41-28:5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고, 혹시라도 목사님께서 성경대로 안 산다고 책벌할 때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습니다. 경직하고 올바른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지역 사회가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전도 되었습니다. 백년이 지난 지금 교회와 성도님들의 권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첫 번째 아름다운 말 - 첫 열매
 “그가 그 파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18)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 된 행실로, 구별된 자녀의 삶속에서 드러나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고자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2. 두 번째 아름다운 말 - 형제
 야고보 사도는 약 1:19-20절을 통하여 다른 사람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며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형제 정신은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사람 대하지 말고 오직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섬기는 종의 정신으로 형제와 이방인을 대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가져야할 정신은 바로 형제 의식입니다.
3. 세 번째 아름다운 말 - 가정
 본문은 이삭과 야곱이 형제이면서 형제가 되지 못한, 한 가정의 갈등의 역사가 하나님을 심히 근심케 하고, 세계 역사를 흔라게 만든 갈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서는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므로 이삭과 리브카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며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서는 베고폼에 장자의 명분까지 팔아먹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적 가치보다는 육체적인 것과 향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 네 번째 아름다운 말 - 약속
 성경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 또는 실수가 가장 적은 사람을 선정하려면 바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노년에는 종종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창조의 질서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풍습이나 관습과 같은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가는 것,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 말씀을 역행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다가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은 성도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5. 다섯 번째 아름다운 말 - 화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예서의 어머니 리브카가 두 아들을 화해를 시켜 주지 못한 사실입니다. 리브카는 예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숙의 집에 피하여 있으라고 했는데 이 일로 야곱은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잘못하지 않는 자가 잘못한 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라는 말은 용서 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원수를 징벌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 임하는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6. 여섯 번째 아름다운 말 - 돌봄
 기독교 영성,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과 실천이 결합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최고 영성의 진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적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약 1:27)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존재적 가치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맺는 말
 사순절 기간 동안 영광된 승리의 아침이 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버림받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연약한 형제를 돌보고 무너져가고 해체 되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6: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6(사순절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0(9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시 134: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의 송축하라”...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384(43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3:4-5 인 도 자
 찬 송 70(79) 다 함 께
 기 도 오승민 집사
 성 경 약 2: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 설 교 자
 * 찬 송 440(49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석상화 권사
 성 경 호 13: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르게 하시고(창 28: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자녀사랑기도회 / 30일(토) 오전 6시10분 101호(새벽기도 후)
2. 임마누엘 절기 찬양 연습 / 30일(토) 오후 5시 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장 례 1. 故 최성문 집사(14교구 최미경 권사의 부친, 강령모 성도의 장인) / 16일(토) 별세, 18일(월)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2명	234명	205명	1,311명	13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17일	헌 금	30,428,850	
	찬양운영비		1,000,000
	교회학교운영		975,700
	성례비		477,0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96,000
	퇴 직 금		15,964,931
	예 수 금		73,840
	복리후생비		60,000
	통 신 비		787,360
	수도광열비		165,000
	차량유지비		93,880
	소모품비		314,50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4,427,000
	잡 비		113,000
	식당운영비		577,770
	합 계	30,428,850	26,097,781